

크리스마스마켓 즐기고, 특별공연 감상도…

한강에 펼쳐진 '로맨틱 크리스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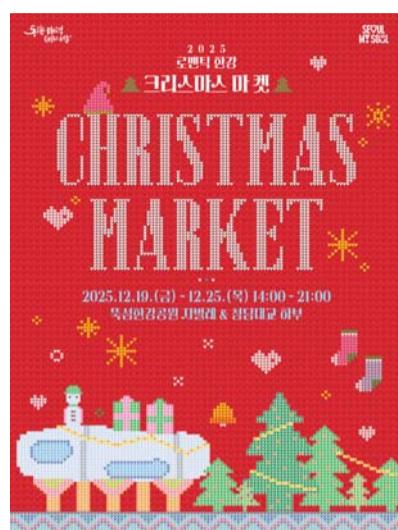
서울시, 19일부터 한강 겨울축제 뚝섬한강공원, 마켓·푸드·포토존 반포한강공원, '봄' 컨셉 체험공간 세빛섬, 연날리기 '한강바람축제'

한강을 배경으로 한 겨울 축제가 오는 19일부터 시작된다. '로맨틱 한강 크리스마스 마켓'을 비롯해 '한강페스티벌_겨울'이 열리며, 연말을 맞아 시민들이 한강에서 계절의 정취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서울시는 작년 63만 명의 국내·외 관객이 발걸음한 2025 한강겨울축제를 올해는 뚝섬·반포한강공원 등에서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2025 로맨틱 한강 크리스마스 마켓'은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14시부터 저녁 9시까지 뚝섬한강공원 자벌레와 청담대교 하부 일원에서 개최된다.

'즐거움 가득한 놀이터'를 콘셉트로 한 이번 행사는 ▲마켓존(크리스마스 소품 판매 상점 40여 개) ▲푸드존(먹거리) ▲포토존 등으로 구성된다.



2025 로맨틱 한강 크리스마스 마켓 포스터

올해 마켓존은 특별하게 뚝섬한강공원의 자벌레 1층에 마련된다. 푸드존은 청담대교 하부 일원에서 운영되며, 포토존은 뚝섬한강공원 야외와 뚝섬자벌레 실내에서 만나볼 수 있다. 규모가 가장 큰 '로맨틱 포레스트'는 청담대교 교각에 설치되는 루미나리에와 그 아래 키하우스를 배경으로 총 7개의 트리가 숲을 표현한다.

한 뚝섬 자벌레 실내의 '체험존'에서는 도자기 오너먼트, 키링 만들기 등 총 10개의 프로그램이 7일간 총 30회 열린다. 19일 오후 4시 30분, 24일·25일 저녁 7시에 브릴란떼 어린이 힙창단 등이 선보이는 '특별공연'도 열린다.

'8월의 크리스마스' 표현처럼, '한겨울에 먼저 찾아온 이른 봄'을 담아낸 감성 공간인 '봄ON한강'은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앞둔치에서 19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된다. 이 공간은 봄꽃 둠, 쉼터 둠, 포토 둠 등 3종류의 체험형 둠 공간으로 구성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붉은 말의 해' 2026년이 희망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며 겨울철 인기 민속놀이 중 하나인 연날리기 '한강바람축제'도 27일, 28일 양일간 세빛섬 앞수변무대에서 개최된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겨울한강에서 만나는 특별한 축제를 놓치지 말고, 얼마 남지 않은 한해를 온기 있게 마무리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자치구 관리 국가유산, 서울시가 직접 챙긴다

예산·관리인력 부족 등 어려움에 서울국가유산돌봄센터 운영·지원 서울시 전역 '총괄관리체계' 구축

그간 서울 각 자치구가 관리하던 국가유산을 앞으로는 서울시가 직접 돌본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16개 광역시·도는 국가유산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는 센터를 운영하지 않았다.

국가유산 소유자·관리자(단체) 또는 자치구가 맡는 국가유산 보존 관리를 광역시·도가 맡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였다.

이 과정에서 국가유산 관리에 빈틈이 생겼다. 예산 부족과 상주 관리 인력 부재 및 노령화 등 이유로 소유자·관리자 가 관리상 어려움을 호소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구 역시 부족한 예산, 전문성 미흡, 관리 인력 부재 등을 토로했다고 한다.

자연 재난이나 재해, 사고 때 자치구 전문 조직과 인력이 부족해 선제적 대응(긴급 조사, 응급조치, 복구 지원 등)이 어려웠다. 이런 가운데 법률이 개정돼 광역시·도가 국가유산 보호·관리에 참여할 근거가 마련됐다.

국가유산청은 2020년 6월 문화유산 법을 개정해 지역 여건에 적합한 국가유산 돌봄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 사항을 명시했다. 광역시·도의 국가유산 보호·관리 직접 참여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시는 국가유산 돌봄 사업 범위를 확장하고 대상을 늘려 서울시 내 국가유산 예방 관리 체계를 구축하

기로 했다.

서울국가유산돌봄센터를 운영하고 돌봄 사업 전문 인력을 지원한다. 이 인력은 국가유산 감시, 일상 관리, 경비 수리 등을 실시한다. 재난과 재해로 국가유산 피해 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서울시 전역(25개 자치구)에 있는 국가유산은 768개소(무형, 동산문화유산 제외)고 이 중 올해 돌봄 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국가유산은 524개소다.

앞으로 시는 서울국가유산돌봄센터 운영 사업자를 선정하고 총괄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국가유산의 사전 예방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유산 보호·관리를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경기도 외국인 81만명… "정책 변화 필요"

5년 이상 장기체류 비율 56.6%

경기도 내 외국인 가운데 장기 거주자와 외국국적동포 비중이 높아지면서 기존 단기 체류 중심의 정책보다는 이들의 장기 거주를 지원하는 방향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도는 15일 시흥시에서 31개 시군이 민자지원부서 담당자 워크숍을 열고 이

런 내용을 담은 '2025 경기도 이민자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약 81만 명의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국의 약 33%를 차지하는 규모다. 도는 급증하는 이민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도내 이민자 712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 가족생활, 사회참여, 차별 경험

등 실태조사를 했다. 조사에 따르면 체류 유형 중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22.3%로 가장 높았으며, 한국 거주기간은 10년 이상(29.8%)과 5년~10년 미만(26.8%) 등 5년 이상 장기체류 비율이 56.6%로 과반을 차지했다.

김원규 경기도 이민자사회국장은 "정주형 이민자 사회로 빠르게 전환되는 상황에서 차별 해소, 경제·사회적 참여, 건강권 보장 등 실제적인 정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김용택 기자 mk4303@



▲홍콩 법원, 반중 언론사주 지미 라이 유죄 판단…무기징역 가능성
▲중국 11월 산업·소비·투자 동반 둔화…실업률은 5.1% 유지

/사진 뉴시스

▲트럼프, 시리아 미군 피격에 "큰 피해 줄 것"…재차 보복 예고

▲中, 이와사키 전 日 통합막료장 제재…대만 정부 고문 맡아

▲중국, 한중일 보건장관회의에 장관급 아닌 국장급 파견
▲日홋카이도에 폭설·눈보라로 교통 마비…항공·열차 결항

경주벚꽃마라톤대회, 내년 4월 4일 개막

보문단지서 개최… 18일 선착순 접수

받고 있다.

경주시는 '제33회 경주벚꽃마라톤대회'를 내년 4월 4일 토요일 오전, 경주 보문관광단지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주벚꽃마라톤대회는

보문호수와 도심 문화유산, 벚꽃길이 어우러진 코스를 따라 달리는 국내 대표 봄철 마라톤 행사로, 3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을 이어오며 국내외 마라토너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다. 특히 벚꽃이 만개하는 시기와 맞물려 '봄의 경주'를 상징하는 스포츠 축제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영양군, 내년부터 전 군민 농어촌버스 무료

내년 1월 5일부터 무임운행

100%, 일반 군민 선호도 84%로 긍정적 평가가 높았다.

영양군은

이번

군민 농어촌버스 무료화를 시행한다.

이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70세 이상 농어촌버스 무료화 정책의 확대 시행으로 영양군민이라면 무임교통카드를 발급받아 관내 농어촌버스(영양동행버스)를 무임으로 이용하면 된다.

한편 대구시와 경북도 18개 시·군이

공동으로 시행 중인 70세 이상 농어촌버스 무료화 사업은 어르신 만족도

100%, 일반 군민 선호도 84%로 긍정적 평가가 높았다. 영양군은 이번 전 군민 농어촌버스 무료화 시행으로 군민들의 이용 만족도 및 이용 패턴 분석이 가능해지는 만큼, 향후 대중교통계획 수립과 노선 개편 등에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영양군은 2026년부터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계

층별 환급률에 따라 대중교통의 이용금

액을 환급해주는 K-패스 사업도 시행 예정이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폐교·신설 등 내년 경북 43개 학교 개편

경북교육청, 지역별 학생 수 반영

천조(4학급) ▲포항 해오름중(27학급) ▲구미 원당중(37학급) ▲구미 문성중(25학급) 등이다.

신설사유는 학생 수 증가, 과밀 해소, 공동주택 입주 등에 따른 것이다.

내년에 폐교되는 곳은 ▲김천 구성초 ▲김천 지례초 ▲안동 온해초 ▲상주 낙동부초 ▲포항 죽장초 상옥분교 ▲포항 장기초 모포분교 등 23곳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교 배치의 적정 성과 통학 안전, 교육 서비스의 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육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안동(경북)=김준한 기자 kih9@

오늘의 날씨

해뜰 07:40 | 해짐 17:15



메트로 한줄뉴스